

## 여중·고생들의 교복변형행동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

박은희 · 조현주<sup>†</sup>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Satisfaction according to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of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Eunhee Park · Hyonju Cho<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students' attitudes towards uniform modification and analyze their subjective experience regarding appearance, and body satisfact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69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living in Deagu Metropolitan City. Frequenc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hi^2$ -test, and t-test are all used for data analysi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Two hundred thirty students (62.3%) agreed to modify their school uniforms to express their personalities and follow fashion trends. Motives for uniform modification had to do with social lif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racticality.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re found to be shaped by appearance internalization, active management of appearance, appearance needs, social recognition, and conformity. The motives for uniform modification reveal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ttitudes toward appearance. Uniform modification satisfaction differed depending on sub-variables of attitude toward appearance(active management of appearance, personalized appearance needs, social recognition, and body satisfaction, such as satisfaction with height and BMI).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ression of intention for future plastic surgery depending on body image.

**Key words** :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교복변형행동), attitudes toward appearance(외모에 대한 태도),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

<sup>†</sup>Corresponding author: Hyonju Cho, Tel. +82-53-950-5927, Fax.+82-53-950-5924  
E-mail: pgio@wmail.knu.ac.kr

This research was presented at the 2015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Business.

## 1. 서론

청소년은 2차 성장과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의심을 갖으며 친구들과 자주 비교하고 정서적으로도 발달이 불안정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과 그룹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Wee, 2015) 일생 중 다른 어느 시기보다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또한 의복을 통하여 자신감 획득, 동년배 집단과의 동조, 사회적 승인, 개성을 추구하는 등 의복은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Yang & Jeong, 2013). 이들은 높은 의복관심과 또래집단의 의복동조, 연예인에 대한 외모 모방과 유행행의 몰입 등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I. Lee, K. Lee, & Shin, 2001).

교복은 학생신분과 소속감,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일, 의복재료, 색채를 통일시키며, 각 학교에 맞는 상징성과 신분에 맞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디자인하여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 역할을 한다. 최근 교복은 착용범위가 확대되어 학교 외의 공간에서도 착용하는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생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H. Chung & S. Kim, 2004). 현재 교복은 패션과 몸매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세련되고 슬림해 보이도록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교복업체에서는 친환경 소재, 정전기 방지, 항균 및 방취 효과를 준 소재, 땀과 수분을 신속히 배출하는 동시에 외부의 공기를 차단한 보온성 소재, 바지에는 튼튼하고 편안한 소재, 날씬해 보이면서 착용감이 편한 소재, 몸에 자연스럽게 딱 맞고 단점을 커버해 주는 기능들을 적용하고 있다("To choose wisely uniforms," 2013). 하지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개성에 따른 교복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현재 트렌드에 따라 지나치게 밀착되는 형태의 교복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런 유행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교복변형행동과 관련하여 외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자기표출을 하려는 의도가 높으므로 많은 시간 착용하는

교복으로 멋지게 자기연출을 하려고 한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외모와 관련되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신체에 대한 개념이 최고를 이루며, 신체에 대한 감정상태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Cho & Koh, 2001). 현재 트렌드는 몸에 밀착된 스키니 팬츠와 짧은 미니 스커트, 허리와 어깨가 꼭 맞는 재킷 등의 몸에 피트된 여성스러운 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영향으로 청소년은 교복의 미적측면과 또래집단의 동조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기도 한다. 교복 변형이 비행이나 반항적 행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을 보여주려는 표현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10대는 여전히 아동기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얼마간 남아있으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아를 점점 더 잘 알게 되며 자신의 적합한 외모나 행동에 관해 관심이 많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도로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인지한다고 느낀다(Kaiser, 1995). 게다가 유행에 관심이 높고 의복의 과시성이나 사회적 승인을 추구하는 청소년일수록 교복을 변형하고자 한다(H. Chung & S. Kim, 2004). 청소년들의 교복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스커트 길이와 폭, 재킷의 품 등이며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시 유행하는 패션아이템에 영향을 받는다(Y. Lee, H. Lee, & Y. Han, 2006). 따라서 의복은 제2의 피부로 자신의 신체 위에 입혀져 외모를 평가하였을 때 만족하면 자신감을 높여준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간 교복을 착용하는 청소년들의 교복변형행동과 관련하여 신체만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복만족도와 교복변형행동(Ryu, K. Park, & H. Kim, 2011; Y. Lee et al., 2006), 교복행동(M. Han & E. Lee, 2009; H. Chung & S. Kim, 2004), 교복변형행동(H. Chung & Jeong, 2005; Woo & Y. Kwon, 2009; Jeon & Y. Kim, 2007), 교복 선호도(Yang & Jeong, 2013)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여중·고생들의 교복변형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부분의 시간 교복을 착용하는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변형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복변형행동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인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의 교복행동을 통해 교복시장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복변형행동

교복은 일반적으로 의복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막아 의복을 통일하고 착용자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착용 목적을 둔다(Y. Lee et al., 2006). 교복은 단순히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넘어서서 원만한 교우관계와 자기만족의 수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J. Seo, J. Lee, & H. Park, 2011). 최근 교복은 개성화되고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이 개발되면서 교복의 색상과 무늬, 디자인이 다양해졌다(M. Han & E. Lee, 2009). 교복 업체는 라인을 돋보이게 하고 오염방지공, 신축성을 극대화하여 활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교복을 선보였다("Advertising on smart school uniforms," 2015). 하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교복의 미적측면, 맞춤새에 불만족하여 교복변형을 하고 있으며 주로 스커트 길이, 재킷 품을 변형하고 있다. 또한 또래 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한 교복변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몸에 지나치게 밀착되는 형태로 교복 변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M. Han & E. Lee, 2009). Jeon and Y. Kim(2007)은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교복 변형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교복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복을 변형하고 있다고 하였다. Y. Lee et al.(2006)은 장시간 착용하는 교복을 변형하는 청소년의 의복행동은 의복을 자기표현과 사회적 승인을 위한 중요한 의미자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D. Kim and I. Kim(2001)은 가장 많이 착용하는 4개 교복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호칭에 대한 각 부위 제품치수가 업체별로 차이를 나타내었고, 호칭에 따라 증감분 편차도 각 업체마다 다르게 나타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치수에 민감한 여중생들의 교복 구입시 어려움을 더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년별 치수만족도에서 1학년은 대부분의 부위에서 크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 3학년은 크다는 응답비율은 낮아지고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많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의 부위에서 40-50% 정도를 차지해 현행 교복업체 치수가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설정되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H. Chung and S. Kim(2004)은 여고생은 52.6%가 교복 변형을 하였으며, 변형 형태는 몸에 맞도록 줄이고 복고 스타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스커트의 변형에 있어서 길이를 길게 하거나 폭을 늘이는 힙합 스타일의 변형도 나타났다. 교복 변형의 이유는 몸에 맞도록 교복을 변형함으로써 날씬하게 보이도록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며 이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며 또래 집단 사이의 유행 스타일을 따른다고 하였다. H. Chung and Jeoung(2005)은 여고생의 교복변형은 상의 품, 소매통, 상의 길이 순으로 줄이는 비율이 높았고 하의는 치마길기와 허리둘레의 변형비율이 낮았으나 엉덩이둘레의 변형률이 높다고 하여 여고생들은 비교적 몸에 밀착하는 형태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Y. Lee et al.(2006)은 교복 변형을 한 청소년이 58.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교복의 일부 혹은 여러 부분을 변형시켰다. 교복 자켓의 길이, 옆선, 품 등 부위별로 줄여서 몸에 밀착된 형태로 변형시켰는데 여학생은 주로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며 개성적으로 보이기 위한 변형에 중점을 두는 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복변형 이유는 디자인이나 치수가 유행과 개성에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유행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월 용돈이 3만원미만인 청소년이 유의하게 높아 월 용돈이 적은 경우 교복변형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M. Han and E. Lee(2009)는 청소년들은 외모를 돋보이기 위해 교복의 길이, 옆선 등 교복을 줄여서 몸에 밀착된 형태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교복의 미적측면, 맞춤새에 불만족하여 교복

변형을 하고 있으며 주로 스커트 길이, 재킷 품을 변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M. Choi and Son(2012)은 중·고등학생의 착용교복에 대한 교복변형행동에서, 전체 61.3%가 교복변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변형 경험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은 재킷길리와 소매길리의 줄임이, 중학생은 재킷앞품, 허리둘레, 어깨너비, 소매통의 줄임이 많았다. 스커트 경우 고등학생은 스커트폭과 스커트 주름의 줄임이, 중학생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리의 줄임이 많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템이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으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복변형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는 대인지각의 후광효과로 작용하여 개인의 능력과 같은 다른 특질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됨으로 현대인들에게 있어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E Park, 2012).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외모관리 형태가 의복태도와 관련지어 나타난다(Kaiser, 1995). Wee(2015)는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루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착용하는 교복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외모의 평가기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복행동으로 나타난다(M. Han & E. Lee, 2009).

자신을 평가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비교에 근거하여 자기를 알게 되는데 이때 타인과의 비교기준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하게 된다. 이는 그 당시 사회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기준으로 개인이 그 가치를 수용하여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어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신체이미지 및 외모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E. Park,

2012). 특히 청소년기는 높은 의복관심과 또래집단의 의복동조, 연예인에 대한 외모 모방과 유행에의 몰입 등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되어간다(I. Lee et al., 2001). 이들은 외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외모관리를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볼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의복을 통하여 타인의 반응을 고려하고 자신의 신체매력을 과시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M. Han & E. Lee, 2009). 따라서 여중·고생은 현재 트렌드를 추구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일 수 있게 교복을 변형하여 개성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Choi(2012)는 여고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대체적으로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거나 치수가 너무 크게 나오는 등 치수와 디자인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H. Chung and Jeoung(2005)는 고등학생들이 청소년기의 특징인 자신이 돋보이기 위하여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관심 있는 동년배 집단에 속하려는 욕구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동조성의 하나로 교복변형을 꾀하게 된다고 보았다. Horn and Gurel(1981)은 동료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려는 욕구는 중학생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되면, 보다 개성적인 방법으로 옷 입는 것과 이성을 매력시키기 위해 옷 입는 것에 중요한 가치관을 둔다고 하였다.

## 3. 신체만족

Lennon, Rudd, Sloan, and Kim(1999)은 사회비교이론에 기초하여 외모와 관련된 미적 이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하여 자신이 신체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외모를 비교하게 되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모를 관리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체비교는 대중매체의 영향뿐 아니라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또래와 수시로 신체비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고, 신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

구가 강해지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 가치나 행동의 준거가 되므로 또래와의 비교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Wee, 2015). Cho and Koh(2001)은 고등학교 시기에 외모와 관련되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신체에 대한 개념이 최고를 이루며, 신체에 대한 감정상태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신체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 전체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 만족, 불만족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신체상과 현실의 신체상과의 차이가 적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더욱 만족하게 된다(Park & Cho, 2012). 신체만족은 자신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헤어스타일의 변화, 메이크업의 변화, 피부관리, 체형관리, 성형수술, 의복구매 등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S. Kwon, Yoo, & E. Kim, 2014). 신체만족도는 객관적인 신체 치수 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기준에 근거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Choo, 2002).

Cho and Koh(2001)은 청소년기 여학생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적 비교를 하고,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미디어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신체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Park and Cho(2012)는 여대생은 실제 몸무게보다 이상적 몸무게가 낮게 되기를 원하였지만 남자 대학생은 실제 몸무게와 비슷하거나 보다 높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미적 기준에 의한 영향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받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만족도는 신체치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이상형에 대한 기준도 이론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신체비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대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여자대학생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고 관심도 또한 높아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일상생활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 Kwon et al., 2014). Wee(2015)는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외모에 대한

현상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보통수준이상이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수용적이라고 하였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내면화형은 신체적 외모에 대해 친구들과 가장 많이 비교하며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인식형은 신체비교를 덜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적극 수용하고 내면화 정도가 높은 여고생은 신체비교를 많이 하여 신체만족이 낮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1. 여중고생의 교복변형행동을 파악한다.
2. 여중고생의 교복변형동기, 외모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한다.
3. 여중고생의 교복변형동기와 외모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4. 여중고생의 교복변형경험에 따른 외모태도와 신체만족을 알아본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대구 지역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2013년 3월에 걸쳐 예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5월 3일~5월 13일 대구 지역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39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69부를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일년 이상 착용한 경험이 있는 중학교 2학년 여중생 175명(47.4%)과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일 년간 본 학교의 교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194명(52.6%)을 대상으로 하였다.

SPSS PC+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chi^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 3. 측정도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교복변형행동, 외모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복변형행동(uniform motivation behavior)은 교복의 불만족한 부분을 현재 트렌드에 맞게 변형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교복변형행동의 교복변형의 유무와 교복변형 부위에서는 선행연구를(Ryu et al., 2011)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교복변형 유무를 묻는 문항으로 변형을 한 청소년과 하지 않은 청소년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재킷의 변형 부위는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재킷길이, 소매통, 소매길이와 스커트의 변형 부위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를 제시한 후 짧게, 길게, 그대로 착용으로 구성하였다. 교복변형 동기(motives for uniform modification)는 선행연구를(H. Chung & S. Kim, 2004)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외모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ppearance)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를 통해 외모관리를 하게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M. Han & E. Lee, 2009)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7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만족(body satisfaction)은 현재 사회문화적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의 신체 전체나 어떤 부분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E. Park & Cho, 2012)를 바탕으로 작성한 문항은 실제 키와 이상적 키, 실제 몸무게와 이상적 몸무게, BMI, 다이어트 유무, 성형이 필요하다면 할 것인지, 얼굴 부위 중 성형하고 싶은 부분 등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학년, 부모님 직업, 한 달 용돈, 가계 월소득 등 5문항이었고, 단순선택형으로 구성하였다.

교복변형행동은 교복변형의 유무와 변형이유, 교복변형 부위에 대해 조사하였다. 교복의 변형 유무는 Table 1과 같이 전체의 230명(62.3%)이 교복 변형을 하였으며 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은 139명(37.7%)으로 나타났으며 여중생은 35.2%, 여고생은 64.8%에서 교복변형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급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중학생이 여고생보다 교복변형경험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M. Han and E. Lee(2009)의 연구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료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려는 욕구는 중학생 정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보다 개성적인 방법으로 옷 입는 것과 이성을 매혹시키기 위해 옷 입는 것이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고 한 Horn and Gurel(1981/1988)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여고생은 중학생 시기를 거치면서 교복변형을 하였으므로 교복변형 경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규범에 동조하려는 욕구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교복변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복변형경험 유에서는 한 달 용돈이 5만원이상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교복변형경험 무에서는 한 달 용돈이 3만원미만, 3만원이상-5만원미만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용돈이 높을수록 교복변형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월 용돈이 3만원 미만인 청소년이 유의하게 높아 용돈이 적은 경우 교복변형행동을 많이 한다고 한 Y. Lee et al.(2006)의 연구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계한달 수입에 따른 차이에서는 교복변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이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에서 고르게 분포되었고 교복변형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교복변형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여중고생들의 변형행동에서(Table 2), 길이 그대로 착용 89.4%, 어깨너비, 가슴둘레, 소매통, 소매길이를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에 허리둘레 그대로 착용 82.7%로 나타나 자켓에서 수선하기를 원하는 부위는 허리둘레였다. 수선을 원하는 부위가 허리둘레(

## IV. 결과 및 논의

### 1. 여중고생의 교복변형행동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Uniform Modification Experience

Demographic variables		Uniform modification Exp. Yes n=230(62.3)	No n=139(37.7)	Sum n=369(100%)	$\chi^2$
Grades	Girls' middle school	81 <sup>a</sup> (35.2 <sup>b</sup> )	94(67.6)	175(47.4)	36.496***
	Girls' High school	149(64.8)	45(32.4)	194(52.6)	
Monthly allowance	Less than 3 million	37(16.1)	48(34.5)	85(23.0)	29.120***
	3-below 5 million	69(30.0)	47(33.8)	116(31.4)	
	5-below 8 million	59(25.7)	15(10.8)	74(20.1)	
	8-below 10 million	18(7.8)	4(2.9)	22(6.0)	
	More than 10 million	16(7.0)	4(2.9)	20(5.4)	
	None	31(13.5)	21(15.1)	52(14.1)	
Monthly income	100-below 200 million	8(3.5)	1(0.7)	9(2.4)	12.039*
	200-below 300 million	62(27.0)	44(31.7)	106(28.7)	
	300-below 400 million	52(22.6)	48(34.5)	100(27.1)	
	400-below 500 million	53(23.0)	21(15.1)	74(20.1)	
	More than 500 million	55(23.9)	25(18.0)	80(21.7)	

\*p < .05, \*\*\*p < .001 (a=observed frequency, b=observed percent)

Table 2. Jacket-modification Behavior

Element chosen for modification	Shape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N=369) N(%)	Element chosen for modification	Shape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N=369) N(%)
Shoulder width	Modification	Shorter	23(6.2)	Jacket Length	Modification	Shorter	36(9.8)
		Longer	2(.5)			Longer	3(.8)
	No modification	344(93.2)	No modification		330(89.4)		
Bust	Modification	Shorter	26(7.0)	Sleeve girth	Modification	Shorter	30(8.1)
		Longer	4(1.1)			Longer	5(1.4)
	No modification	339(91.9)	No modification		334(90.5)		
Waist	Modification	Shorter	65(16.5)	Sleeve length	Modification	Shorter	15(4.1)
		Longer	3(.8)			Longer	11(3.0)
	No modification	305(82.7)	No modification		343(93.0)		

41.7%)와 길이(35.2%)로 나타난 Ryu et al.(2011)의 연구에서 보면 변형 부위는 유사하지만 변형 정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중·고생들의 스커트 변형행동에서(Table 3), 엉덩이 둘레는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91.6%로 나타난 반면에 스커트길이는 그대로 착용

36.3%, 짧게 59.1%, 허리둘레 그대로 착용 77.2%로 나타나 스커트 길이를 짧게 착용함을 알 수 있고 스커트 치수체계가 엉덩이 둘레에 맞추어져 있으며 허리둘레는 신체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고생들이 스커트의 길이와 허리둘레를 변형하기를 원한다고 한 Ryu et al.(2011)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교복의 미적측면, 맞춤새에 불만족하여 교복변형을 하고 있으며 주로 스커트 길이, 자켓 품을 변형하기 원한다고 한 M. Han and E. Lee(2009)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반면에 여고생의 치마길리와 허리둘레는 비교적 변형비율이 낮으나 엉덩이 둘레의 변형률이 높다고 한 H. Chung and Jeung(2005)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 2. 교복변형동기, 외모에 대한 태도의 요인 분석

### 1) 교복변형 유무에 따른 동기의 요인구조

교복변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여중생은 35.2%, 여고생은 64.8%에서 교복변형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복변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중·고생의 교복변형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Table 4), 요인 1은 친구들과 비슷해 보이기 위해,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르기 위해서 교복변형을 한다는 내용으로 “사회성”이라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키가 커 보이기 위해 교복변형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체 매력”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3은 학생답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교복변형을 한다는 내용으로 “실용성”이라 명명하였다. 3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alpha$  값이 요인 1은 .72, 요인 2는 .66, 요인 3은 .55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57.44%였다.

평균에서 보면, 교복변형동기는 신체매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여중·고생들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키가 커 보이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외모에 대한 태도의 요인구조

여중·고생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Table 5), 요인 1은 현대사회에서 제시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받아들여 내면화하는 것으로 요즘 말하는 몸짱이나 얼짱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나도 인기모델처럼 생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외모 내면화”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외모에 신경을 자주 쓴다는 내용으로 “적극적 외모관리”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TV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 닮고 싶은 내 이상형이 있으며 매력적인 이성친구와 사귀고 싶다는 내용으로 “외모욕구”라 명명하

Table 3. Skirt-modification Behavior

Element chosen for modification	Shape		Middle and high school girls(N=369) N(%)
	Modification		
Waist	Modification	Shorter	80(21.7)
		Longer	4(1.1)
	No modification		285(77.2)
Hip	Modification	Shorter	27(7.3)
		Longer	4(1.1)
	No modification		338(91.6)
Length	Modification	Shorter	218(59.1)
		Longer	17(4.6)
	No modification		134(36.3)



였다. 요인 4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인식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에서 동등한 사람들은 보기 싫다고 여기며 마를수록 옷맵시가 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인식”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5는 인기있는 연예인들이 입은 옷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동조”라 명명하였다. 5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alpha$  값이 요인 1은 .84, 요인 2는 .78, 요인 3은 .69, 요인 4는 .71, 요인 5는 .61로 나타났

으며, 전체설명력은 66.26%였다.

평균에서 보면, 외모욕구, 외모 내면화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여중·고생은 방송매체를 통해 이상형이 형성되고 몸짱, 얼짱인 친구를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Wee(2015)의 연구를 지지한다.

**Table 4. Factor Analysis of Motives for Uniform Modification**

Factor	Variables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Mean)
Sociality	To look similar to friends	.73	2.36	23.62	.72 (2.73)
	To follow style trends	.68			
	To express personality	.66			
	For stress reduction and refreshment	.65			
	To show off	.59			
Physical attractiveness	To remedy body shortcomings	.82	1.93	42.90	.66 (3.14)
	To look taller	.70			
	To look slimmer	.67			
Practicality	To look neat and scholarly	.83	1.45	57.44	.55 (2.75)
	To permit physical activity	.82			

**Table 5.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Appearance**

Factor	Variables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Mean)
Appearance internalization	I feel tempted to resemble friends who have a nice body or face when I see them.	.84	3.02	17.78	.84 (3.43)
	I wish to have a look similar to that of popular models.	.77			
	I wish to emulate the appearance of attractive entertainers.	.76			
	I want to be similar to attractive friends.	.69			
Active management of appearance	I always do my best to look attractive.	.82	2.45	32.20	.78 (3.33)
	I often care about my appearance.	.78			
	I want to manage my appearance, even though I can't afford it.	.70			
	I want to keep managing my appearance, in spite of age.	.56			

Table 5. Continued

Factor	Variables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Mean)
Appearance needs	My ideal face/body types exists among entertainers from TV or movies.	.72	2.22	45.26	.69 (3.64)
	I want to date someone with an attractive appearance if possible.	.71			
	I should manage my appearance to succeed in my social life.	.63			
Social recognition	I think that society hates to see fat people.	.74	2.10	57.63	.71 (3.34)
	Most people think that dressing to look slim is better.	.70			
	Appearance is very important to succeed in this society.	.62			
	To be handsome or beautiful counts in today's society.	.60			
Conformity	I try to purchase the same clothes as those worn by famous entertainers if possible.	.80	1.47	66.26	.61 (2.48)
	I follow the appearances of people in magazines or TV.	.57			

### 3. 교복변형동기와 외모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여중·고생의 교복변형동기의 하위요인(사회성, 신체매력, 실용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외모내면화, 적극적 외모관리, 외모욕구, 사회적 인식, 동조)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교복변형동기의 하위요인(사회성, 신체매력, 실용성)은 외모태도의 하위요인(외모내면화, 적극적 외모관리, 외모욕구, 사회적 인식, 동조)과  $p < .05$ ,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중·고생은 교복변형 동기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태도의 외모내면화, 적극적 외모관리, 외모욕구, 사회적 인식, 동조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복변형 동기의 신체 매력이 높을수록 외모내면화, 적극적 외모관리, 사회적 인식, 동조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르고 친구들과 비슷해 보이기 위해서 교복 변형을 하는 여학생일수록 요즘 말하는 몸짱, 얼짱이 되기를 원하며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인기있는 연예인들이 입은 옷을 구입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는 여학생일수록 매력적인 연예인을 보면 닮고 싶어하고 현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여기므로 자신도 날씬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거나 치수가 너무 크게 나오는 등 치수와 디자인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한다고 한 Choi(2012)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청소년의 신체비교는 일상적인 대중매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또래와 수시로 신체비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한 Wee(2015)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 4. 교복변형경험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

여학생의 교복변형경험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교복변형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의 적극적 외모관리

**Table 6. Correlation: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Motives for Uniform Modification**

Motives for uniform modification	Variables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internalization	Active management of appearance	Appearance needs	Social recognition	Conformity
Sociality		.202**	.342**	.160*	.162*	.247**
Physical attractiveness		.173**	.329**	.153*	.146*	.187**
Practicality		-.080	-.042	.019	-.063	-.080

\*p < .05, \*\*p < .01

**Table 7.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Satisfaction by Uniform Modification Experience**

Variables		Uniform modification Exp.	Yes (n=230)	No (n=139)	t-test
Attitude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internalization		3.48(.84)	3.35(.83)	1.475
	Active management of appearance		3.43(.68)	3.15(.80)	3.408***
	Appearance needs		3.77(.65)	3.42(.83)	4.171***
	Social recognition		3.42(.74)	3.21(.75)	2.564*
	Conformity		2.52(.78)	2.41(.82)	1.289
Body satisfaction	Current height - ideal height		-3.99(4.24)	-5.59(4.36)	3.466***
	Current weight - ideal weight		4.19(3.81)	4.51(5.43)	- .609
	BMI		19.69(1.87)	20.19(2.63)	-1.973*

\*p < .05, \*\*\*p < .001

(p < .001), 외모욕구(p < .001), 사회적 인식(p < .05)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신체만족의 실제 키와 이상적 키(p < .001), BMI(p < .05)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여학생일수록 외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연예인 중 닮고 싶은 이상형이 있으며 사회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반면에 교복변형 경험이 없는 여학생일수록 실제 키와 이상적 키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불만족함을 보여주고 BMI(체질량지수)에서도 높게 나타나 신체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성적인 외모나 실제외모를 비교하게 되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Lennon et al., 1999). 교복변형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매력적인 외모에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한 M. Han and E. Lee(2009)의 연구를 지지한다.

교복변형에 따른 신체만족의 하위변인(BMI, 다이어트 유무, 성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할 것인지, 얼굴 부위 중 성형하고 싶은 부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BMI(체질량지수)를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표본의 여학생은 18.5kg/m<sup>2</sup> 미만의 저체중이 27.6%, 18.5-22.9kg/m<sup>2</sup>의 정상이 70.2%, 23-24.9kg/m<sup>2</sup>의 과체중이 1.9%, 25kg/m<sup>2</sup> 이상의 비만이 0.3%였다. 교복변형경험 유무에 따른 BMI와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복변형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다이어트와 미래 성형을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어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만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얼굴 부위 중 성형하고 싶은 부분으로 코와 눈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복변형경험 유무에 따라 없음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교복변형경험이 없는 여학생은 성형에 관심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Body Satisfaction by Uniform Modification Experience

Uniform modification Exp.		Yes (n=230)	No (n=139)	Sum (N=369)	$\chi^2$
Body satisfaction	BMI < 18.5	64 <sup>a</sup> (27.8 <sup>b</sup> )	38(27.3)	102(27.6)	5.168
	18.5 ≤ BMI ≤ 22.9	164(71.3)	95(68.3)	259(70.2)	
	23.0 ≤ BMI ≤ 24.9	2(.9)	5(3.6)	7(1.9)	
	25.0 ≤ BMI	0(.0)	1(.7)	1(.3)	
Have been on diet	Yes	37(16.1)	11(7.9)	48(13.0)	5.115*
	No	193(83.9)	128(92.1)	321(87.0)	
Futur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Yes	156(67.8)	59(42.4)	215(58.3)	22.951***
	No	74(32.2)	80(57.6)	154(41.7)	
Body part chosen for future plastic surgery	Forehead	11(4.8)	3(2.2)	14(3.8)	37.198***
	Eye	64(27.8)	27(19.4)	91(24.7)	
	Cheekbone	10(4.3)	3(2.2)	13(3.5)	
	Nose	68(29.6)	24(17.3)	92(24.9)	
	Chin	15(6.5)	8(5.8)	23(6.2)	
	Tooth	21(9.1)	16(11.5)	37(10.0)	
	Wrinkle removal	5(2.2)	2(1.4)	7(1.9)	
	None	30(13.0)	54(38.8)	84(22.8)	
Others	6(2.6)	2(1.4)	8(2.2)		

\*p < .05, \*\*\*p < .001 (a=observed frequency, b=observed percent)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변형 실태를 파악하고 교복변형행동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인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변형에서, 전체의 62.3%가 교복 변형을 하였고, 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은 37.7%였으며, 여중생은 35.2%, 여고생은 64.8%에서 교복변형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 급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교복변형경험 유무에 따라 한달 용돈과 가계한달 수입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자켓 변형행동에서, 길이 그대로 착용 89.4%, 어깨너비, 가슴둘레, 소매통, 소매길이를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난 반면에 허리둘레 그대로 착용 82.7%로 나타나 수선하기를 원하는 부위는 허리둘레였다. 스커트 변형행동에서, 엉덩이

둘레는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91.6%로 나타난 반면에 스커트길이는 그대로 착용 36.3%, 짧게 59.1%, 허리둘레 그대로 착용 77.2%로 나타나 스커트 길이를 짧게 착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복변형동기의 요인은 사회성, 신체매력, 실용성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한 태도의 요인은 외모 내면화, 적극적 외모관리, 외모욕구, 사회적 인식, 동조로 나타났다. 여중·고생들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키가 커 보이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이들은 방송매체를 통해 이상형이 형성되며 몸짱, 얼짱인 친구를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되길 원하였다.

셋째, 교복변형동기의 하위요인과 외모태도의 하위요인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르고 친구들과 비슷해 보이기 위해서 교복변형을 하는 여학생일수록 요즘 말하는 몸짱, 얼짱이

되기를 원하며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인기있는 연예인들이 입은 옷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는 여학생일수록 매력적인 연예인을 보면 닮고 싶어하고 현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여겼으며 자신도 날씬하게 보이길 원하였다.

넷째, 교복변형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의 적극적인 외모관리, 외모욕구, 사회적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고 신체만족의 실제 키와 이상적 키에서 차이를 보였다.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여학생일수록 외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연예인 중 닮고 싶은 이상형이 있었으며 사회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반면에 교복변형 경험이 없는 여학생일수록 실제 키와 이상적 키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불만족하였고 BMI(체질량지수)에서도 높게 나타나 신체에 불만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교복변형에 따른 신체만족의 하위변인인 다이어트 유무, 성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할 것인지, 얼굴 부위 중 성형하고 싶은 부분에서 관련성을 보였다. 교복변형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다이어트와 미래에 성형을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어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얼굴 부위 중 성형하고 싶은 부분으로 코와 눈의 비율이 높았고 교복변형경험이 없는 여학생은 성형에 관심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업체의 전략과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사춘기 시작과 함께 체형의 변화를 느끼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다. 여고생은 어느 정도 성인체형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여중생은 불균형적이며 급격한 성장을 하여 다양한 치수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개인차도 현저해진다(D. Kim & I. Kim, 2001). 게다가 교복은 성장발달 과정에 맞추어 치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표준체형에 따라 치수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교복치수가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체형의 변화에 맞게 여중생과 여고생의 교복치수 체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은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교복과 함께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과 액세서리의 허용을 확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중·고생들의 교복을 변형하려는 동기가 자신의 신체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였다.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 이상적 몸매에 대한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장기 청소년에게 적합한 몸매를 인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2008년 이후 스커트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2013년 초미니 스커트의 대중화에 힘입어 교복을 착용하는 여학생들은 유행을 반영한 미니 스커트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외모에 관심이 높으므로 평상시 교복으로 멋지게 연출하려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트렌드가 몸에 피트된 여성스러운 라인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관리가 용이한 기능성 소재를 제안한다. 청소년은 개인에 따라 부위별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게 시접을 두거나 버튼을 활용하여 디자인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대상자를 대구지역 여중·고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확대연구와 연구대상자를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복변형행동에 따른 교복구매행동의 다양한 변인과 관련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Cho, S., & Koh, A. (2001).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the comparison of age difference i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1227-1238.
- Choi, M., & Son, M. (2012). A study on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and school uniform fitting evaluation of middle and high

-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7), 37-48.
- Choi, N. (2012). Appearance management activitie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star-entertainer imitation: school uniform modification, hairstyle, and makeup.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3), 175-189.
- Choo, T. (2002) Multiple body-image and clothing-benefit sought according to body-cathex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4(4), 376-382.
- Chung, H. [Haewon] & Jeoung, I. (2005). Evaluative criteria and modification of girls' school uniforms: focused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7(2), 179-186.
- Chung, H. [Hyegyung] & Kim, S. (2004). A study on school uniform and ornaments behaviors on high school girl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1), 136-150.
- Han, M., & Lee, E. (2009). A study related to adolescent students' school uniform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23-43.
- Horn, M. J., & Gurel, L. M. (1988).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H. Lee, D. Min, & M. Son, Trans.). Seoul: Kachi.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Jeon, C., & Kim, Y. (2007). Uniform modification and fashion accessory wearing according to attitudes toward uniform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2), 132-142.
- Kaiser, S. B. (199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 Kim, E. You, Y. Lee, & U. Lee, Trans.). Seoul: Kyungchu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Kim, D., & Kim, I. (2001). A study on fitness of middle school girls uniform size in consideration of growth: Focusing on jacket and ski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2), 315-326.
- Kim, H. (2013, January 22). To choose wisely uniforms. Retrieved from <http://www.kmib.co.kr>
- Kwon, S., Yoo, J., & Kim, E. (2014). A comparative study on body shap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Korean and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3), 483-500.
- Lee, I., Lee, K., & Shin, H. (2001). *Costumes psychological*. Seoul: Kyungchunsa.
- Lee, Y., Lee, H., & Han, Y. (2006). The clothing behavior, school uniform satisfactions and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of adolesc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133-148.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Park, E. (2012).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pursuit of clothing benefits on ambivalent consumption of fashion product.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1), 137-149.
- Park, E., & Cho, H. (2012). Self-efficacy and Body satisfaction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s typology. *The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0(4), 515-528.
- Park, H. (2015, April 09). Advertising on smart school uniforms. *apparel news*. Retrieved from <http://www.appnews.co.kr>
- Ryu, S., Park, K., & Kim, H. (2011). A study on

- alteration behavior by high school girl students' satisfaction for school unifor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4), 442-454.
- Seo, J., Lee, J., & Park, M. (2011). High school students' buying attitudes toward school uniform brands according to clothing conformity. *The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6), 1320-1333.
- Wee, E. (2015). A study on differences in body comparis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social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mong adolescents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by sex and ag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1), 13-29.
- Wee, E., & Kwon, Y. (2009). A study on school uniform reforming behavior in relation to body image: in the case of high school girl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10), 73-85.
- Yang, E., & Jeong, S. (2013). A study on the uniform preference and demands for uniform improvement of the girls' high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9(3), 425-435.

---

Received (July 13, 2015)

Revised (August 19, 2015; September 7, 2015)

Accepted(September 17, 2015)